



전북자치도 최준열 농업기술원장, 진안군 현장행정

최준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지난 26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벼 지역적응 시험포 추진현황 점검 등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적극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표를 전하며 현장을 들리고 당면영 농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원장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적응시험계통 및 전북육성품종 관찰포(디복찰 심리향) 생육점검과 설수면에 있는 중산간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실증농기술을 방문하여 재배·유동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천하였다.

또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간 간담회를 갖고 견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공유 시간을 가졌다.

최준열 원장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술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소통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경식 소장은 “도·시·군 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 진안 뿐만 아니라 전북 농촌진흥사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 도통동, 취약계층에 김치냉장고 지원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7일, 취약계층 가구에 가정 용품 김치냉장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치냉장고를 지원받은 가구는 중장년 독거가구로, 배우자와 오래전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로,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차 올라 일상생활이나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다.

이에 도통동 및 출현복지팀은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통합사회관리 대상자로 선정, 일상돌봄서비스 네이버플로바 케어를 등 다양한 비우저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를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더불어 주기적인 육구 협조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이어갈 계획이며, 김치냉장고를 지원받은 당시자는 “평소 간이 좋지 않아 음식을 조금씩 먹고 남은 것은 보관해야 했는데, 김치냉장고를 지원받아 남은 음식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며 감사의사를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동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노인일자리 어르신 폭염 관리 나서

남원시 노암동(동장 차미화)가 지난 27일, 관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폭염 특별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노암동은 유례 없는 폭염에 지친 관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전달하고자 특별한 행사를 기획, 차미화 동장이 예방교육 등을 직접 설명하고 맞춤형복지팀장(박진우)의 재능기부를 통한 열정적인 레크리에이션(기분전환 놀이) 게임을 통해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한 어르신은 “요즘처럼 더위에 지쳐 있는 참여자들을 위해 뜻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등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일하는데 무엇보다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차미화 동장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힘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낮 시간대를 피해 텐리 운영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진포초 6학년 4반 학생들 ‘특별 초대’

시민 안전 지키는 시 공무원들에 응원 메시지 담은 편지 전달로 인연 맺어

군산시가 28일 시청으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주인공은 군산 진포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교사와 학생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군산시청 공무원들에게 학생들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면서 소중한 인연이 시작됐다.

시청을 방문한 담임교사와 학생 20명은 먼저 시장실과 재난종합상황실, 시의회 본회의장 등 군산시 청사를 견학했다.

시장실에서 손님들을 맞은 김인준 군산시장은 함께 기념 활동을 하며 어린 학생들을 반겼다. 활영 후엔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시청들을 직접 물어보는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에서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본 일행은 시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군산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장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재난 상황 발생 시 군산시의 전파체계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시장님도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니 이해도 잘 되고, 수많은 CCTV 현장 화면을 통해 군산시내 곳곳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솔한 담임교사 역시 “군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준 군산시장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직원들을 응원해준 진포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군산진포초 6학년 4반 학생들, 군산시의회 견학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8일 군산진포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교사 포함 학생 20명이 군산시의회를 방문,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 시설 견학 시의회 소개, 시의회 역할·기능, 본회의 진행 등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색다른 체험 등을 하였다.

학생들은 “뉴스에서 보던 본회의장에 직접 와서 의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사봉 체험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교과서로 배웠던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장은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방문이 이루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페이퍼코리아, 군산시에 추석명절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28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페이퍼코리아(주)(대표이사 권육상)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385포(1,0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2014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탁을 해오고 있는 페이퍼코리아(주)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나 나눔 실천 기업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상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권육상 대표이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를 통해 함께 상생하며 지역사회나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준 군산시장은 “힘든 경기 속에서도 이웃을 돋기 위해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페이퍼코리아(주)에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페이퍼코리아(주)는 1944년 설립한 국내 1호 제지사로 현재 친환경 산업용지를 주력 생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크라프트지 내수시장 1위 기업이다. 최근에는 여러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종이 개발 및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이재준 기자



남원시 향교동, 방학곡곡 시정홍보

남원시 향교동은 지난 8월 28일부터 임실읍사무소, 임실체육회 방문을 시작으로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비롯해 남원누리시민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개최되며, 올해는 △국제드론·로봇 레이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전시체험&컨퍼런스 △드론 공연체험 페스티벌 △남원 글로컬 푸드 페스티벌 등 네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드론·로봇 체험 △멀티 드론쇼 △개막축하 공연 △유명 유튜버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다문화여성대학 4기 수료식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7일 여성결혼민자 15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다문화여성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다문화 여성대학은 이민여성농업인들이 농업·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듣는 역할로 매주 한글교육,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수료식 행사에는 수료생 학습발표회 및 수료증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2회 무주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 28일 제12회 무주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횡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김범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김성근 구전동농협 조합장 등 내외 귀빈 및 원로조합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 상호 협동정신을 발휘함은 물론 사회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기로, 참가팀은 무주5팀, 안성5팀, 적상3팀, 부림2팀, 진도2팀, 미양3팀 18개팀 130여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무주농협의 곽동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검산동 복지기동대,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봉사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준열)와 보건복지팀이 28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세대를 방문해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송영애 검산동장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직원 및 복지기동대원이 참여해 낡고 고장난 가스레인지 교체 및 가스 안전 점검을 병행했으며, 대상자 가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안내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력이 되지 않아 수리하지 못했는데,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인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송영애 검산동장은 “검산동민의 생활불편이 있을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복지기동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고향사랑 100만원 기탁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직원(9명)들이 2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영삼 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는 지역축량 등을 통해 지역개발과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직원들 모두 무주가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기부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서는 2023년에도 고향사랑기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으며, 지난 6월에는 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등과 함께 농촌 일손 돋기기에 동참한 바 있다.

또 8월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 나눔 무료 층량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